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빛을 통한 주체적인 삶의 조형적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소 정

빛을 통한 주체적인 삶의 조형적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소 정

인 준 서

이소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7년 본인의 석사 학위 청구전 'Light of vision'에 출품된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과 조형적 표현을 분석한 것이다.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이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선택하여 삶을 영위 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은 항상 나아갈 길에 대한 선택과 나아가고 있는 길에 대해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 예기치 못한 부모님과의 격리가 본인의 불안한 심리적 정서에 기인하였으며, 이의 극복으로 본인은 '이불'에 대물애착(object Attachment)을 형성하였다. 이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불이 만들어내는 높고 낮은 구름과 구겨진 궤적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흡사하며, 극한 어두움과 빛의 대치 속에서 드러나는 꿇어질 듯 이어지는 밝은 빛의 궤적은 본인이 '가야 할 삶의 길'을 예시하는 느낌을 주면서 안정된 마음을 유발하는 인자로서 다가 왔다. 이를 근거로 다중(多衆)적구조의 구겨진 형상의 이미지는 빛과 어두움의 극한 대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작품을 통해 '삶의 불안감'을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삶의 확신'으로 전환 시키는 주술적 측면의 치유적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작품형성의 과정을 '프로스트'의 '가지 많은 길'을 인용하여 '불안한 인생의 길'에 대한 '선택적 의미'와 '주체적 선택의 인생의 길'에 대하여 논하고, 본인 작업의 주 조형 요소인 '빛과 단색조의 톤(tone)'이 내포하고 있는 시각적 표현성을 근거로, '확신과 희망'으로 상징되는 빛의 의미와 단색조의 변주를 통한 계시적 성향의 묵시적 공간으로 해석한 조형적 관점을 논하였다. 그리고 작품분석을 통해서 작품내용과 조형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2
1) 작품 발상의 동기 - 불안한 정서의 반영과 해소	2
2) 여러 갈래의 삶의 길 - 영속적 선택	4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6
1) 드러냄과 숨김	6
2) 절제로서 단색의 톤(tone)	8
3. 작품 분석	9
III. 결론	21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Untitled_0171, 90.9 x 72.7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2] Untitled_0172, 72.7 x 90.9cm, oil on canvas, 2017
- [작품 3] Untitled_0173, 130.3 x 80.5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4] Untitled_0174, 130.3 x 89.4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5] Untitled_0175, 117 x 150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6] Untitled_0176, 133.3 x 72.5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7] Untitled_0177, 116.8 x 91cm, acrylic on canvas, 2017
- [작품 8] Untitled_175, 70 x 100cm, pencil on paper, 2017
- [작품 9] Untitled_172, 56.5 x 76cm, pencil on paper, 2017
- [작품 10] Untitled_171, 100 x 70cm, pencil on paper, 2017

I. 서 론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언제나 여러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살아간다. 어느 선택이 나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항상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의 선택에 있어 염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결여이거나, 타인에 의한 여러 길의 제시가 존재하는 환경에 의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적 삶의 본연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삶의 확신’으로 전환시키는 치유적의미의 본인작품 연구를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의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 전개시키고자 한다.

첫째 범주는 ‘작품의 내용적 전개’로서 어린 시절 본인에게 형성된 불안한 정서에 의한 ‘이불’에의 대물애착(object Attachment)에 대한 서술과, 그 극복의 의미로서 이불의 ‘다중(多衆)적구조로 구겨진 이미지’에서 유추된 본인 작품 발상의 동기와 치유적의미를 서술하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하여 ‘불안정한 인생의 길’에 대한 선택의 의미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인생의 길의 다중적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둘째 범주는 ‘작품의 조형적 전개’로서 본인 작품에 드러나는 조형적 특성을 빛의 표현성을 통한 ‘드러냄과 숨김’ 그리고 단색의 색조 변주를 통한 ‘묵시적 공간’으로 나누어, 상징적 의미와 계시적 성격의 공간 형성의 조형적 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두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작품분석’에서 작품에서 드러내고자하는 의도를 해석한 조형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제작과정의 아쉬움과 앞으로 작업방향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작품 발상의 동기 - 불안한 정서의 반영과 해소

내 불안은 낫지 않는 상처처럼 가끔은 나의 삶을 막아서고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힘의 원천이자 은총이기도 하다.¹⁾

인간은 삶을 영위하면서 불안한 심리적 정서를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지니고 살아간다. 불안한 감정은 예기치 못한 시공간이 만나는 상황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하는 본능적 감성이기도 하다. 심리학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떤 확실한 대상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고 미래 지향적 감정으로서,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라고 하였다.²⁾ 불안은 우리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이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이며 그 반영이다. 인간은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유지하면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상과의 교류를 통하여 불안, 공포, 우울 등의 감정들을 해소하고 치유 한다.

심리학에서 분리불안으로 인하여 아동이 어떠한 사물에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대물애착(object attachment)³⁾이라고 한다. 즉, 불안한 심리 정서를 가진

1) 스콧 스토크셀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반비, 2015, p.422

2) 미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3) 양육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유아들은 환경을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아동은 보통 부드럽거나 포근한 재질을 가지는 이불, 담요 그리고 인형 등에 ‘대물애착’을 형성하여 ‘접촉위안(contact comfort)’⁴⁾을 받는다.

본인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부모님과 분리로 유발된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담요’라는 대물에 애착을 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본인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밀려오면 집안 곳곳에 담요를 끌고 다니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불을 만지며 손가락으로 깊고 낮은 여러 형태의 주름을 만들기도 하고, 눈으로 그 주름의 길을 따라 부모님이나 수호천사와 함께 먼 여행을 가는 듯한 상상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대물 애착’에 대한 경험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졌고, 본인은 초조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형성될 때마다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아가는 상상과 함께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특히, 이불 주름이 빛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굴곡진 단면과 높낮이가 다른 구름이 만드는 미세하게 밝은 단면의 다중(多衆)구조의 궤적은 고지대에 형성된 가파른 길을 연상 시킨다. 본인은 이 길을 눈으로 따라 가면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더불어 묘한 흥분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측하거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연출에 의한 인생여정의 굴곡진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는 착각에 빠져든다. 이로부터 본인은 천의 주름이나 구겨진 종이 또는 구부러진 손금 등의 다중 구조로 구겨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물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인은 다양한 인생의 길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물의 형상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이는 이불이라는 소재에서 나아가 다른 소재로의 확장을 위함이다.

해소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애착 행동을 나타낸다. 장휘숙 「아동심리학」 박영사, 2010, p.288

4) 할로우와 짐버만(Harlow & Zimmerman)의 실험에 의해서 제시된 용어로, 접촉위안은 접촉에 의해서 아동이 위안과 안정을 받기 때문에 접촉위안을 주는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장휘숙 「아동심리학」 박영사, 2010, p.288

실상, 본인은 대학원 학기 초부터 마음속에 내재된 삶의 숙명인 선택의 기로에서 갖는 막연하고 불안한 감정을 기본적 도형과 글씨들을 다층적으로 설정하여 흑암의 어두운 세계로 설정하며, 무언가 가야하는 목적지를 예시하고, 그리고 미세한 빛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매번 형식적 시험에 불과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발된 조급하고 초조한 불안 정서를 달래기 위해 본인은 습관처럼 이불을 만지작거렸고, 구겨진 이불의 다중궤적이 인생의 길과 동질적 특성을 지닌 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본인은 다중구조로 구겨진 이미지를 빛과 어두움의 극한 대치를 통해서 드로잉과 회화 작업으로 드러내고자 하였고, 삶의 길에 대한 근원적 의미의 모색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루어 간다는 확실한 신념적 믿음에 대한 욕구 측면에서 본인의 작업을 제작하였다.

2) 여러 갈래의 삶의 길 - 영속적 선택

불안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착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불안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우리의 필연성에 대한 앎이자 우리의 종속성의 반영이다. 다만 우리는 불안에 맞서는 힘들을 개발하려고 시도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용기, 신뢰, 인식, 힘, 희망, 겸손, 믿음 그리고 사랑 말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받아들이고, 불안을 따져보고, 불안을 거듭거듭 새로이 이겨나가게끔 도와 줄 수 있다.⁵⁾

삶은 매순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의 영속적 선택과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면서부터 삶

5) 프리츠 리만 「불안의 심리」 문예출판사, 2007, p.11

을 이루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먼저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라는 선택에서부터 ‘자신의 미래 꿈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 할 것인가?’ 그리고 ‘결혼은 누구와 할 것인가?’ 등과 같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선택의 상황을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 시는 길을 걷던 시인이 노란 숲 속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나고, 두 길을 다 갈수 없기에 갈등 속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길은 이어져있어 힘들어도 계속 가야만 할 수 밖에 없었기에, 가지 않았던 길의 행로에 대한 궁금함과 미련 그리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시인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향로의 의미를 이야기 하였다. 프로스트는 이 시를 통해 인간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힐 때 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매번 고민하여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숙명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으며, 시간을 되돌려서 가지 않은 길로 다시 가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인간은 늘 결정의 순간을 만나며, 가지 않았던 길에 미련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프로스트는 시의 마지막 4연에서 표현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⁶⁾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인간은

6) 로버트 프로스트 「불과 얼음」 서울: 민음사, 1973, p.50

자신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여 자신의 선택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불안은 항상 자유와 함께하며, 인간은 계속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⁷⁾

즉, 인간은 매순간 마주치는 선택의 기로에서 정당성과 불안감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선택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인생의 길은 이불에서 드러나는 천의 주름처럼 여러 갈래의 길마다 다른 여정의 길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마치 퍼즐처럼 삶의 형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전개되어지는 길의 여정은 선택된 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개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기에 불안은 우리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다.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드러냄과 숨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들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취려 하심이니라⁸⁾

본인의 작품은 빛을 주 조형요소로 하여 빛과 어두움의 극한 대비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에 따른 명암의 단계에 의한 점진적 톤(tone)의 흐름을 구축하여 정중동(靜中動)의 묵시적 공간성을 형성한다. “광채는 바라는 의미에 따라서 강조점을 부각하는 것을 돕는다. 우리는 사물을 크게 하거나 색채를

7) 변광배 「존재와 무 :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 2005, p.168

8) 하용조 「비전성경」 두란노서원, 2002, 율기 33:30

강하게 하거나 공간의 중앙에 놓지 않고서도 그것에 주목하도록 부각시킬 수 있다.”⁹⁾라고 루돌프 아른하임은 빛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러한 빛의 표현성을 이용하여 본인은 어둠 속에서 주요 이미지를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spotlight)효과를 사용해 대상의 일부분만을 빛으로 강조하였다. 본인은 낮낮이가 다른 대상을 빛의 투사 각도에 따라서 드러나고 숨겨지는 구조로 보여줌으로서, 빛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적 세계에 대한 예시적 성격의 표현성을 느끼게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 여정으로서의 길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는 본인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초월적 실재를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빛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정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예시자로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시간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정하였다.

사람들은 밝음에 의하여 대상을 가시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빛을 예측 가능하며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존재로서 용기, 희망, 그리고 순탄함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 그러나 어둠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위험, 불길함, 난관,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통념을 바탕으로 본인은 흑암과도 같은 어둠의 공간이 지배하는 화면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밝음과 미세한 밝음이 함께 어우러져 자아내는 미묘한 변조로 담대하고 긍정적이며 힘찬 의지와 함께 고요하고, 신비로우며 그리고 청아한 맑은 명상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다중구조의 구겨진 이미지는 밝음과 어둠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이불의 구겨진 주름, 마른 식물 잎, 그리고 손바닥에 존재하는 주름의 이미지를 빌려 제작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분리불안에 의한 ‘대물 애착’으로 ‘접촉위안’을 준 이불의 구겨진 껍적에서 ‘삶의 길’을 연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다중 구조를 가진 이불의 구겨진 주름을 삶의 길이라

9)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2003, p.312

고 인식하고 이를 드러냄과 숨김을 형성하는 빛의 표현성을 활용하여 ‘삶의 길을 예시하는 지도’로서 암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길함과 불길, 행과 불행 나아가 삶과 죽음의 이중적 구조를 밝음과 어둠의 대비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절제로서 단색의 톤(tone)

푸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시구가 귀를 매혹하듯이 그림에서의 색채는 눈을 유혹하는 아침꾼이다.”라고 말했다.¹⁰⁾

빛의 표현성과 함께 본인의 작업에 중요한 조형요소는 빛과 사물이 만나 이루는 명암단계에 의한 색조변조이다. 본인은 중간 단계에서 밝은 명도단계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의 미묘한 명도 단계를 색채에 따른 변주 없이 단색조의 미세한 감성을 표출하여 점진적 리듬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인이 작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그 가는 길의 여정에 따른 시간성과 목적지로 향한 공간성의 흐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를 통하여 본인은 엄격하고 정지되어 있는 어두움이 구조를 이루는 작품에 홀연히 드러나는 밝은 부분에 미세한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어두움을 뚫고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조심스럽게 조성된 미세한 톤의 변주는 화면에 간결한 절제미를 유발시켜 초월적 세계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명도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색채는 흰색이나 검은색과 거의 다를 바 없지만, 중간부분에서는 고채도의 색상부터 같은 밝기의 회색에 이르는 다양한 채도 간계를 보여준다.¹¹⁾ 그래서 본인은 색이 인식 가능한 중간 부분의 비중을 상

10) 루돌프 아르하임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2003, p.331

11) 위의 책 p.335

대적으로 줄이고 높고 낮은 명도를 톤(tone)¹²⁾으로 드러냄으로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이도록 사용하여 엄숙하고 절대적 느낌을 조성하였다. 감성을 유발 시키는 간결한 단색조의 톤(tone)의 미세한 변주는 절대적 측면의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화면에서 미묘한 감성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색을 인지하면 이와 관련이 있는 대상 혹은 감각 등을 떠올리는데, 이것을 추상적 연상¹³⁾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파란색을 인식하였을 때, 바다, 하늘, 그리고 청바지 같은 대상과 시원함, 우울함, 그리고 깨끗함 등과 같은 감정을 생각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은 활기찬 감상을 자아내는 원색을 혼용하여 채색하지 않고, 색을 절제하여 감상자에게 작업 안에서 한 색조의 선명한 명도 차이를 느끼게 함으로 가장 밝은 부분을 명도의 최상단을 차지하는 깨끗한 흰색을 사용하여 소망과 바람의 느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의식으로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는 것처럼, 본인은 색채에서 야기되는 감성적 접근을 최소화하여 예시적이며, 절대적인 성격의 ‘인생의 길에 대한 의미’를 단색조의 명암단계 변주를 통하여 바람의 초월적 공간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3. 작품 분석

[작품 1, 2, 3, 4, 5, 6, 7]은 절제된 단색의 톤을 기반으로 어두움과 밝은 공간의 대비를 극대화 하여 절대적인 공간 연출을 도모한 작품으로 본 논문의

12) 원색 또는 혼색이 흰색과 검정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김현영 「Color Color Color」 애경, 2003, p.19

13) 사람들이 색을 보고 그와 관련 있는 분위기, 이미지 등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연상.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예림, 2007

주요 연구 작품이다. 본인은 작품의 제작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 작품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작품 이미지는 구겨진 이불[작품 1, 2, 3, 4, 5], 마른 식물의 잎[작업 6] 그리고 손이 만들어내는 주름[작품 7]에서 빌려 이루어 졌다.

이 작품들은 어두운 화면을 주조로 하여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밝은 공간을 캔버스의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간 지점에 좁은 범위로 홀연히 떠 있는 느낌의 이미지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삶속에서 제시되어지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본인은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체적 선택’에 따른 길의 방향성을 상징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시 작품 설치에서 드러낼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화면을 구성하였고, 부유하는 듯한 이미지는 다소 신비적이며, 절대적이고, 그리고 묵시적 공간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의 작업은 먼저 조명을 활용하여 이불, 식물, 그리고 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주름을 여러 방향에서 사진으로 기록한다. 이후, 본인의 감성에 와 닿는 사진을 선택하여, 이를 화폭에 옮기면서 본인이 주목시키고자 하는 특정 부위를 밝은 공간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숨겨 부유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시킨다. 본인은 이러한 밝음과 어두움의 극한 대비로 알지 못하는 삶의 여정을 암시하는 동시에, 암흑과 같은 공간에서 수많은 갈래의 길들이 숨겨져 있는 듯한 상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본인은 밝은 이미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하여 인생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에서 느낄 수 있는 고뇌, 압박감, 그리고 불안한 감정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1] Untitled_0171, 90.9 x 72.7cm, acrylic on canvas, 2017

[작품 1]은 회화작업 초기 작품으로 밝은 부위가 어두운 부위보다 넓게 설정된 작품이다. 그리고 밝은 영역의 높낮이가 다른 작품 보다 평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소 불안정한 사선 방향으로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선택한 길이 실제적으로 평탄한 평지와 같이 생각보다 순조로움을 상징하여 제작 한 그림이다. 이후 작업에서는 어두운 부위가 조금씩 넓게 자리 잡으면서 점차적으로 부유하는 목시적 공간으로 전이되어진다.



[작품 2] Untitled_0172, 72.7 x 90.9cm, oil on canvas, 2017

[작품 2]는 어두운 공간과 밝은 공간의 경계가 확연하게 분리되어 드러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조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작품의 아래 부분의 어두운 공간과 밝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바위산처럼 계시적 메시지가 들연히 부유하여 확신과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등불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밝음과 어둠 공간의 경계 부위에 제일 강한 빛의 표현을 이루어 왼쪽 위로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확연하게 분리되는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살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나 일을 통해 해결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달리 짧은 순간의 부유하는 찰나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하여 부드럽고 그라데이션(gradation)하기 편한 유화로 제작하였다.



[작품 3] Untitled_0173 130.3 x 80.5cm, acrylic on canva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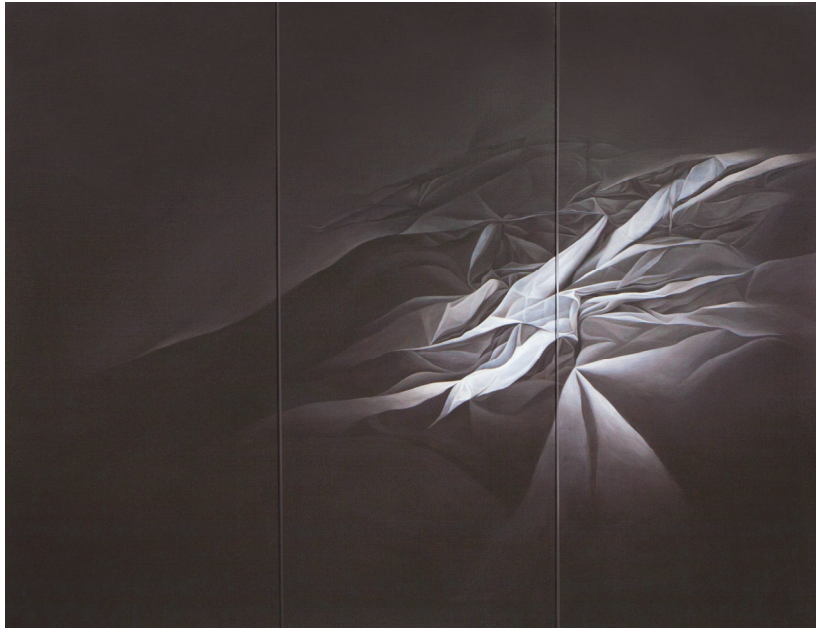
[작품 3]과 [작품 4]는 어두운 공간 속에 사선 방향으로 밝은 동적 이미지가 나아가는 정중동의 모습을 빛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 3]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삶의 경험을 연상하여 이루어진 작품이다. 다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불안정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공간 배치와 날카롭고 가파른 사선 구도를 부분적으로 구성하여 드러내하고자 하였다.



[작품 4] Untitled_0174, 130.3 x 89.4cm, acrylic on canvas, 2017

다. 이러한 시기에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등불과 같은 메시지를 어렵게 얻게 되었을 때, 힘차고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연상 하여 빛에 의한 강한 색조의 변주와 가파르게 상정된 사선 구도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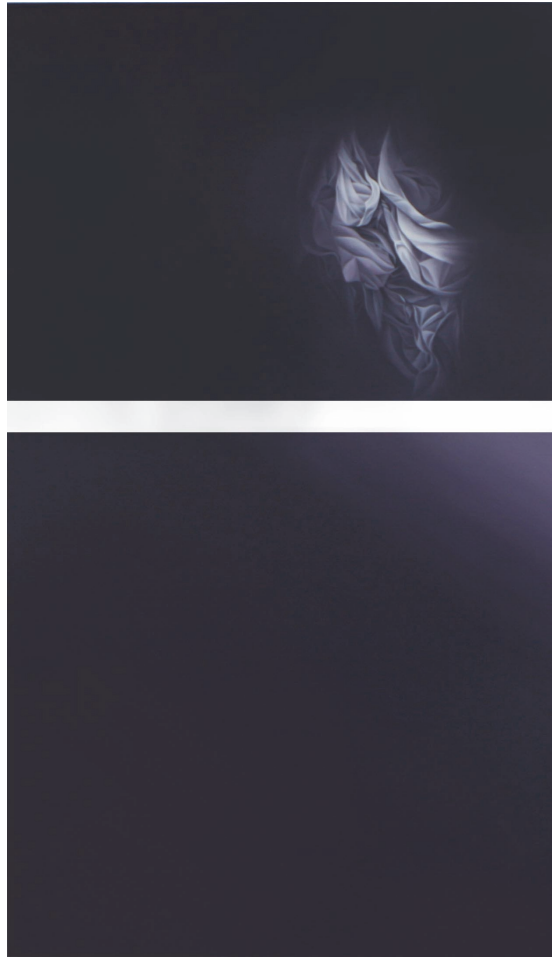
[작품 4]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상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신이나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인지하기에, 주저 없이 힘차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삶의 근원적 목적성을 잊고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며, 내가 나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며 인생의 길에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초라하고 무의미한 자신을 자각한 방황의 시기가 본인에게 있었



[작품 5] Untitled_0175, 117 x 150cm, acrylic on canvas, 2017

[작품 5, 6, 7]은 작품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잡혀지기 시작한 최근의 작품으로서, 본인이 상정하고자하는 초월적 세계의 계시적 메시지를 암시하는 공간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작품 5]와 [작품 6]은 복수의 캔버스를 이어붙이거나 설치적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완결시킨 작품이다.

[작품 5]는 3개의 동일한 크기의 캔버스를 이어서 제작한 작품으로 밝게 드러나는 이미지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향하면서 갈수록 이미지가 점점 어둠에 가려 숨겨지게 구성하였다. 이 작품은 이어붙이는 부분에서 공간을 분할하는 듯한 직선 이미지의 엄격함을 빌어 초월적인 ‘절대적 공간’을 부각 시키고자하는 조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본인은 사선 방향으로 동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의 표현성만으로는 절대성을 유발시키는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있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단호하고 절대적인 조형적 특성을 가지는 직선 이미지를 빌어 엄숙한 공간성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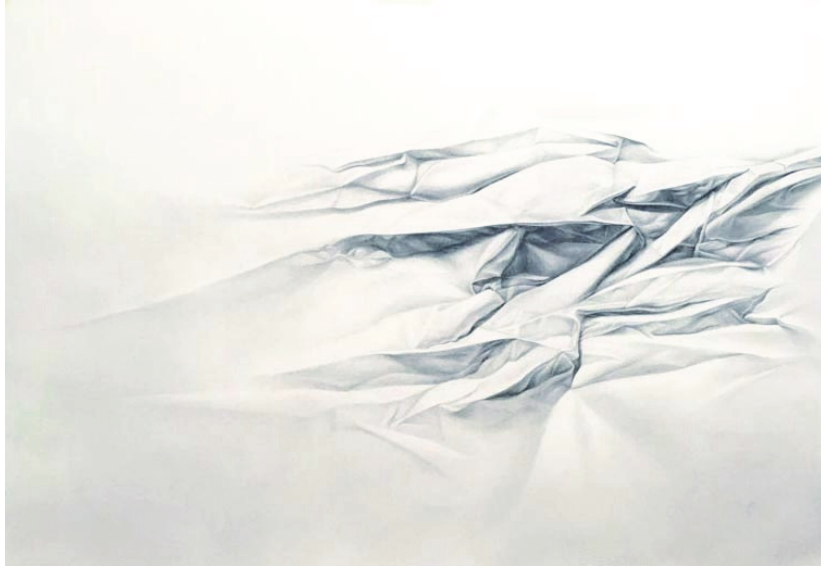
[작품 6] Untitled_0176, 133.3 x 72.5cm, acrylic on canvas, 2017

[작품 6]에서는 같은 가로 길이를 가진 캔버스를 아래와 위로 병치하여, 다중구조의 주름에 빛이 투사되어 밝게 드러나는 면들이 겹쳐서 보여 지는 위의 캔버스와 미세한 빛이 감지되는 아래의 캔버스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암시하고자 하였다.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짙어진다.’는 말처럼, 어둠과 밝음의 경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극대화된 넘나듦을 상징하였다.



[작품 7] Untitled_0177, 116.8 x 91cm, acrylic on canvas, 2017

[작품 7]은 본인이 의도하는 초월적 공간과 빛의 효율적 표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본인이 깜깜한 어두운 공간에 새어 들어오는 작지만 밝음이 충만한 별빛은 맑고 영롱하며, 신의 계시를 드러내듯 신비로운 빛을 투사하면서 절대적 어두움이 지배하는 흑암의 공간에 유유자적하고 부유하여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쪽배를 연상하며 그린 작품이다.



[작품 8] Untitled_175, 70 x 100cm, pencil on paper, 2017



[작품 9] Untitled_172, 56.5 x 76cm, pencil on paper, 2017



[작품 10] Untitled_171, 100 x 70cm, pencil on paper, 2017

[작품 8, 9, 10]

[작품 8, 9, 10]은 앞에서 설명 하였던 본인의 회화작품 이전에 제작된 드로잉 작업으로, 다중 구조로 구겨진 이불을 이미지화 하여 그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강렬한 대비와 형태가 확연하게 표현된 앞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들은 관화지에 연필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연필로 그려진 부분을 광목천으로 문질러서 흑연의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부드럽고 몽환적인 느낌의 표현성에 주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세계는 비현실적인 심상의 세계이기에 다소 신비로우면서도 미지의 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몽환적 이미지로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작품의 조형적 표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모색 단계로서, 이 드로잉 작업들을 시도 하면서 비현실적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인작품의 주요한 조형 관점과 표현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대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만 극대화하여 드러내고 주변의 이미지들은 생략하는 표현 방법을 통해, 현실적 대상을 비현실적 이미지의 세계로 전환 할 수 있는 조형어법의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에 자리 잡고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아스라한 연기 혹은 뿌연 운무 속에 드러나는 이미지를 구축한 이 작업들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비현실적인 심상의 세계마저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기반으로 한 상징적 이미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Ⅲ. 결 론

본인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존재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존재가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술 작품은 정신적 활동을 기반으로 삶의 지각에 의한 직관과 감각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예술가는 비가시적 세계를 가시적 세계로 이미지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공허하게 사라질 맹목적 창작이 아닌,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화시키는 의미를 지닌 작품을 창작할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인은 삶을 끊임없이 발생하는 선택적 인생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 삶의 여정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면서 영위한다. 실상 우리는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인생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타인의 견해를 따른 맹목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였음에도 끊임없이 의심하며 선택의 올바름을 확인 받기를 원한다. 본인 또한 불안정한 삶의 여정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동일한 과정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유년시절 부터 삶의 불안정한 여정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유달리 많은 본인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새로운 길을 설정 할 때마다 자신의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린 시절 분리불안에 의한 ‘대물 애착’으로 ‘접촉위안’을 준 이불은 ‘삶의 주체적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시키는 본인 작품전개의 주요 동기의 실마리 역할을 하면서 치유의 주술적 의미마저 띠게 된다.

실상 본인이 논하고 있는 ‘삶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불가시적인 ‘초월적 세계’로서, 무거운 주제인 동시에 해결 불가능한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존재와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무형의 이미지는 예술가의 인지된 지각에 의한 직관과 감각에 의해 시각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삶의 불안정한 여정’에 주목하였던 본인에게 창작은 불가지(不可知)의 초월적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순화 시키는 선형적 메시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마치 주술적 의미를 지닌 원시시대 동굴벽화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적 질서와 정신을 고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은 본인의 심리적 불안함을 치유하는 역할과 함께 감상자들에게 삶의 불확실함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삶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확신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등대처럼 주술적 염원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한 본인작품의 형성과정과 조형적 추구과정을 연구 분석 한 것이다. 비가시적 세계를 빛의 상징적 표현성을 통해 드러내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측면에서 작품에 내재된 의미와 그 조형 관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지된 지각을 바탕으로 직관과 감각에 의해 구현된 비가시적인 초월적 세계를 글을 통해 논리적으로 서술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는 감성과 논리적 해석의 방법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삶의 이면에 수반되는 ‘삶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의 부족’에서 기인함을 느꼈다. 그러나 본 논문을 쓰면서 삶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깨워 진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적 질서와 정신을 고양하는 작업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 고 문 헌

- 김현영 「Color Color Color 」 애경, 2003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2003
로버트 프로스트 「불과 얼음」 서울: 민음사, 1973
미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예림, 2007
변광배 「존재와 무 :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 2005
스콧 스토크셀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반비, 2015
장휘숙 「아동심리학」 박영사, 2010
프리츠 리만 「불안의 심리」 문예출판사, 2007
하용조 「비전성경」 두란노서원,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of Independent Life through Light

- Focusing on Researcher's work -

Lee, So-jung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formative expressions of Light of Vision, a work selected for an exhibition 2017 for this author's master's degree.

It is an inescapable reality that human beings must choose their own paths and lead their lives accordingly. Personally, I am in a constant state of mental anxiety about making decisions related to paths I am taking and those I will need to take in the future. This anxiety is rooted in a certain emotional disturbance resulting from an unexpected separation from my parents during childhood. As a remedy, I developed object attachment to blankets. This attachment is still with me to this day.

With the highs and lows of their hills and the trajectory of their folds, blankets bear some resemblance to the fickle journey of life. Further, the

tenuous yet continuous path of bright light that manifests itself in the stark contrast of light and dark seems to embody the *path of life to take*, eliciting serenity in the beholder.

In this context, this author's piece of art contains curative meaning in the magical aspect, as it transforms the *anxieties of life* into *conviction in life led by independent decisions*, through a multilayered series of crumpled images playing off the stark contrast of light and dark. As an allusion to Robert Frost's *The Road Not Taken*, the creative process of this piece discusses the *selective meaning* of the *uneasy path of life* and the *independent decisions* of the *path of life*. Moreover, based on visual expression embodying the main formative elements of the piece, *light* and *monotone*, this work also discusses a formative perspective. This perspective interprets the meaning of light as a representation of *conviction* and *hope*, and the variations of monotone as a revelatory spac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work describes in detail its contents and the process of formative.